

# 1. 풍성한 삶의 원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본문: 요한복음 15: 5-7, 1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1.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에게 ‘성공’을 말하는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던 2-3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어왔던 단어가 ‘성공’ ‘비전’ ‘목적’ ‘희생’과 같은 단어였다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가장 와 닿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부하고 세속적으로 느껴지는 ‘성공’이라는 말을 끄집어 낸 이유는 ‘성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분의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과 상관이 없는 성공을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성공’이라 부를 것이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가운데 ‘포도나무 비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넝쿨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비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정욕에 쉽게 넘어가는 지 말입니다. 땀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잘 볼품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찜인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찜이뇨

오늘부터 우리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성공’을 꿈꾸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공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또한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의 일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작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생명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는 생명을 가진 나무의 부산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마도 ‘열매’라는 말과 ‘성공’이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라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의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무와 붙어 있다면, 죽거나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원리 1,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공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편리한’ 일 일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사도행전 속으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 합니다.

### 춘화현상

호주 시드니에서 한 교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우리나라 개나리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신의 집 마당에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한국에 비해 훨씬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분에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나리꽃은 피지 않았습시다. 첫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 이듬해에도 그리고 3년 째 되는 해에도 개나리꽃은 피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그제야 그 분은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 시드니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서 알았습시다. 반드시 추위를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용어로 '춘화현상' 이라 하는데 개나리, 튼릿,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치 춘화현상의 꽃과 같습시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아름답게 꽃망울이 맺히는 법입니다...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보리와 같아 인생의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가 더욱 견실해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이재철, 사도행전 속으로4, p381>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 아니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을까요? 존 오토버그의 책 [인생, 영생이 되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동생인 탕자가 창녀와 놀며 재산을 탕진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시다. 단지 '허랑 방탕'이라는 말이 있고,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형에게 동생을 위해 베풀어진 잔치가 영 못마땅합니다. 자신이 쾌락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왜 엉뚱한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느냐는 것이죠.

존 오토버그는 이러한 일이 '형의 가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의 가지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인식, 그리고 의도가 드러날 뿐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에서 생명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척 노력합니다. 하지만 옳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성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만들어지는 생명력 있는 열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정의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좋은 예화가 될 듯합니다. '사오정'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있었습시다. 하루는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한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시다.

삼장법사의 물음에 손오공은 대답을 하여 소원을 이뤘고, 저팔계도 소원을 이뤘습시다.

사오정의 차례가 되어서 물습시다.

"사오정아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러나 말 귀를 못알아 듣는 사오정은 "애?" 하고 대답을 했고, 그만 소원대로 애가 되고 말았습시다.

문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있음을 알았습시다.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문제는 우리의 무감각에 있습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데 있습시다.

올 한해는 우리 신앙인들이 성공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인의 성공시대 말입니다.

이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의 신앙을 탈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빈약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풍성한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열매는 기쁨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게으름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데 집착해서 정작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방어적인 일들에 신경 쓸데가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전심을 다해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일상 영성]에서 ‘영적 순결함’의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고 지적했다. 우리를 정욕으로 이끄는 것은 영적 공허함이다.

반면 순결의 뿌리는 영적 충만함이다. 클리마쿠스는 순결한 남자는 영적인 사랑으로 육체의 사랑을 몰아낸 사람, 하늘의 불로 육신의 불을 끈 사람이다 라고 썼다. . .

과도한 활동을 통해 성적 순결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적 유혹을 피해 ‘달아나려는’ 시도다.

하지만 단순히 죄에서 달아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고갈시키는 부질없는 노력이다.”

## 열매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이 얼마나 생산적인 결과나 열매를 지향하여 산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이 학자는 벌목꾼 한 사람을 고용했다. “만일 당신이 하루 온종일 이 도끼의 날 없는 쪽만을 사용하여 이 통나무를 두들긴다면, 벌목 현장 임금의 두 배를 주겠소. 그러나 절대로 한 조각의 나무도 패서는 안 되요. 그저 이 날이 없는 쪽으로 벌목할 때만큼 힘껏 두들기기만 하시오”라고 지시했다. 그 벌목꾼은 반나절만 일하고 그만뒀다. “왜 그만두니까?” 심리학자가 물었다. “도끼를 움직일 때마다 나는 통나무 조각들이 쪼개어져 튀겨나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재미로 합니까?” 라고 벌목꾼이 대답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도끼의 날을 거꾸로 잡고 사용하여 한 조각의 통나무도 쪼개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무 열매도 생산하지 못하며 기쁨도 얻지 못한다. 기쁨 대신 무익함, 무용함, 무기력의 느낌들이 자리잡게 된다. 열매 맺는 사람들은 통나무 조각이 쪼개져 튀겨나가는 것을 즐겁게 보는 사람들이다.

<열매맺는 지도자, p21-22>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단순한 지위나, 명예,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 22-23에 보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만히 성령의 열매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 좋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그리고 보니 ‘포도나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룸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하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거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인간의 의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 열매 맺을 장소를 마음에 마련하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규장, 69p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열매는 내 뜻대로 구하는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열쇠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런 느낌이 좋은 예화가 될까요?

깊은 계곡에 나 있는 다리를 함께 건너는 코끼리와 생쥐를 생각해 봅시다.

생쥐는 코끼리의 등에 붙어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사히 흔들리는 다리를 건넌 후 생쥐가 코끼리의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휴우! 우리가 함께 건너니까 다리가 정말 흔들거렸지 그렇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코끼리의 힘에 의지한 한 마리 쥐와 같이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의 흔들림이 자신의 무게나 힘 때문이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구요,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 난관을 측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항상 실패로 끝나 버린다. 그러나 모든 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해낸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들 삶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는 것은 실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외적으로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새의 뿌리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을 때 다윗은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사울이 하사했던 갑옷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삼상 17:47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열매와 성공의 확실한 근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해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해, 무슨 때, 사주 관상, 별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느냐가 열쇠입니다.**

## **원리 2: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예수님이 근원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이시기에, 포도나무를 언제나 보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농부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관한 한 농부가 전문가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한 한 전문가이십니다. 자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굉장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을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발표를 하면, 이상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아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참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자기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부모들이 사진을 찍는지 말입니다. 남들은 흥미롭게 생각해도 그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구별도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참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예사롭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간섭은 귀찮고 때로 번거로우며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간섭’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원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섭의 첫 번째는 인생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신다’(cut off)하십니다. 이 말은 운동경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점점 우승의 정점으로 가는 도중에, 흥미로운 경기를 위해 경쟁이 되지 않는 선수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정점’으로 인도하신 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의 영어 단어는 ‘prune’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가지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쓸데없는 가지를 쳐 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봄을 맞이하는 나무를 위해 가지치기하는 것을 보셨나요?

혹은 정원에 조경사들이 나무를 다듬는 것을 보셨나요?

정말 무자비하게 가지를 자르고, 양상하게 나무만을 남겨놓은 것 같지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조금은 아프지만 우리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입니다.

자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를 깨끗케 하시려고 가지를 칠 때 열매 맺는 우리들 삶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 받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만일 죽은 가지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도리어 무성한 나뭇가지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지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잘려져 나가는 아픔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나의 명예가 될 수도,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냥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되,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시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해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 원리 3: ‘소원’보다 ‘기쁨’이 선행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10 절까지 사이에 10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remai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더욱 분명한 의

미를 전달해 줄 듯합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열매 맺는 삶'의 관건은 계속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보다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11절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룩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선교사의 보고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을 향해 가는 배 안에서, 선장으로부터 중국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모리슨 선교사에게 그가 하려는 사역이 얼마나 허황되며 힘든 일인지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배를 내리려고 할 때 선장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중국 사람들에게 대단한 감화를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러자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장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을 '순종'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 다음에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압니까? 시편 37:4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말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기쁨은 소원보다 선행하는 일입니다. 만일 내가 기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소원하는 바를 좌우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칙을 너무도 자주 거꾸로 사용합니다.

잘못된 성공의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나님을 기뻐할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분이 나의 삶을 살피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6절과 같은 것들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나무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예수그리스도와 함께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집에서 맡은 일 중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도망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자 친구의 집에 가면, 그 친구 역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서는, 주저 없이 여자 친구 옆에서 설거지를 했다는 거지요.

차이가 있다면, 집에서 하는 설거지는 지겹지만, 여자 친구 옆에서 하는 설거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사님에게 이 여자가 기쁨의 대상이 되었기에, 일이 달라졌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소원하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매년 년 말에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 2019]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민박집 회장님으로 맹활약한 가수 이효리가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던진 한마디가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강호동이 한 소녀에게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던진 질문에 이경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답하자 이를 타박하든 이렇게 말했다.

“뭘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 그냥 아무나 되어도 괜찮아”

아마 그녀가 던진 ‘아무나 nobody’되어도 괜찮다는 말은

“무엇이든 괜찮아,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을 뜻했을 것이다. 굳이 우리 모두가 대단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없으며, 그 목표가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나의 큰 목표만이 정답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소확행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정받는 직업과 부러움을 살 만한 재력 등,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만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우리 사회에 소확행 트렌드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다.

## ▣ 하나님이 웃기시네요!! [유머]

출처: 햇별 같은 이야기 / 서정웅

성경 속에 우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어가고 그의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지 오래인 90세의 할머니이니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킁킁거리고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웃기시네요. 제가 이 90이나 된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지만 이 사라 할머니는 배가 불러 오더니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 기뻐 웃는다는 뜻으로 그 아들 이름을 "이삭" 이라 불렀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니까 이러한 내막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교회에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예배 때 남편 구두를 교회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우스워서 한참을 웃었지요. 그래서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실컷 웃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요즘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 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웃기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성공의 우리의 성공과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원이라면, 우리들에게 돈도 명예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한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시작해봅시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일까요?

존 맥스웰이 쓴 [열매맺는 지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